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추가 이벤트!
이벤트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에이조 대형 마우스 패드를 증정해 드립니다.



FlexScan EV2410R



WUXGA 24.1" (1920 x 1200)
16:10 비율 | 3면 베젤리스 디자인
다양한 장비 호환성 | D-Sub mini
Display Port, HDMI, DVI-D

EVENT 사은품 증정!



SALE 605,000원



FlexScan EV2720S



WQHD 27" (2560 x 1440)
USB Type-C | 70W 전원 공급
HDMI, Display Port | 생산성 향상
오토 예코뷰 | 눈 건강 인증 제품

EVENT 사은품 증정!



SALE 935,000원



ColorEdge CS2400R

FHD 24.1" (1920x120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sRGB 100% | ColorNavigator S/W

EVENT 사은품 증정!



SALE 1,100,000원

NEW 신제품 "사진 스튜디오 전용 제품"



전 세계 유명 사진가, 전문가의 인정

전 세계 43인의 에이조 월드 앰버서더 중
한국 국적의 월드 앰버서더는 단 2명
권오철 작가, 김보성 교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정한 에이조 모니터 중
컬러엣지 모니터 시리즈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에
맞는 최고의 모니터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에이조 모니터를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ColorEdge CS2731



QHD 27" (2560 x 1440)
16-bit LUT | EIZO 특허 DUE
USB Type-C | Adobe RGB 99%
ColorNavigator S/W

EVENT 사은품 증정!



SALE 1,870,000원



ColorChecker

Passport Photo DUO

- 1개의 제품으로 사진+영상 촬영 모두 사용 가능
- 사진촬영, 영상촬영을 위한 휴대가 간편한 여권 사이즈 컬러 타겟
- 포토 클래식 / 비디오 클래식 / 인핸스먼트 화이트 밸런스 / 그레이 밸런스 타겟



SALE 198,000원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71길 60-6 (세곡동)

TEL.02-713-5340 FAX.02-715-5340 www.eizo.co.kr * 전화 문의 바랍니다.



ONE HYBRID



One Tripod.
Endless Possibilities.

The ultimate all-in-one hybrid solution for professional content creators.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代) | F.02.742-3387
브랜드샵_T.02.3668-3109,3181 |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ki.co.kr

포토키오스크

모두한컷

졸업앨범 전용



이동 편의성이 좋은 키오스크
 분리 조립이 쉽고 가벼워
 승용차로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졸업앨범 컨셉촬영

졸업앨범에 셀프촬영 인생사진으로
 컨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 수익창출

학교 · 기업행사, 돌잔치, 예식장 등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파란소프트"를 검색 후 채널추가 > 채팅하기



파란소프트



가격 및 구입 문의

051-624-5075

E-mail. paransoft@naver.com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샵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드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www.gana2000.co.kr

 RIME LITE[®]



(주)현대포토닉스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123길 15 (침산동)
고객상담센터 : Tel : 053-359-1445~8 Fax : 053-359-0333
대표이사 : 황운호 www.rimelite.com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존경하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입니다. 낙엽이 지고 새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우리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기획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먼저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부터 냉정하게 점검해보려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AI 기술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 자세를 갖추려 합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과 창의성에 새로운 기술을 더한다면,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도전해보려 합니다. 작은 시도일지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진계를 이끌어온 프로페셔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륜과 실력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 위에 새로운 도전을 더하신다면, 우리 앞에는 분명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기에, 다가올 새해를 함께 희망으로 준비하고 또 그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

발행인 전병재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창간일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대)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기획위원장 나영균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해승 주재기자, 변준섭 사무처장
인쇄 천상영(W 기획)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KPPA's 협회소식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성황리 개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10



〈사진 촬영: 경기 부천점 대표 변봉훈〉

〈제목: 우리 집의 역사〉

- 가족사진이 주는 의미:
가족의 연결과 존재증명
함께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권두언

- 7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도전
기획위원장 나영균

KPPA's 협회소식

- 10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 12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대상 복원프로그램 강의 실시
- 14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인터뷰

CONTENTS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

19 Kppa's 인상·순수사진작가 사/진/전



44

Kppa's NEWS

- 44 인천지회 - 인천 덕적도 자연휴양림 소개
- 45 울산지회 - 제7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전
- 46 광주지회 - 2025 인상사진전 개최
- 54 전남지회 - "서현호의 카메라 아카이브" 코너 소개



45

58 Kppa's 발전기금



46

협회소식 1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성황리 개최

- 법정기념일 ‘소상공인의 날’ 맞아 전국 소상공인 2,500여 명 한자리에
-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참석, 관계자들과 인사 나눠

글: 변준섭 사무처장
사진: 이해승 협회주재기자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공동 주관하였다.



▲ 전병재 회장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최영균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31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개막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업종별 소상공인 및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이동재 자문위원, 이해승 주재기자도 함께 참석하여 소상공인과 사진산업계의 상생과 발전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

한성숙 중기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790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뿌리”라며 “소상공인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포상 수상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격려를 전하며, “매일 아침 희망으로 가게 문을 여는 소상공인의 역동적인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대한민국은 더욱 빛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기관장 표창이 진행되어, 은탑산업훈장(서대호 서진종합건축설비 대표)을 비롯한 총 147점(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이 수여됐다.



▲ 국민의례 모습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개회사

서대호 대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공기법 개발과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단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특별히 참석해 국제적 관심을 더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소상공인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특별관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상권관’, ‘소공인 특별관’, ‘K-뷰티관’, ‘상생협력관’ 등은 소상공인의 혁신 기술과 해외 판로 개척 사례를 전시하며 K-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병재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사진산업 또한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으로, 현장의 노력과 창의적인 기술이 곧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과 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대상 복원프로그램 강의 실시

사진 : 이해승 협회 주재기자



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전병재)는 10월 29일(화) 서울 중구 사진회관에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진 복원 기술 향상을 위한 복원프로그램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진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진 복원 및 보정 기술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최신 복원 프로그램의 기능과 활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형준 강사의 설명으로 회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익히며 복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AI 기술과 디지털 이미지 복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맞춰, 회원들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진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사진 기술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잊지 못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지금
캐논 타이밍

2025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2025년 10월 15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https://kr.canon>

사진업계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돼야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본 글은 소상공인연합회 월간 소상공인 11월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졸업식이나 입학식 또는 생일 등 우리는 뭔가 기념해야 할 날에는 그날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다. 사진은 기록이라는 개념 위에 예술을 덧입힌 매체로서 우리가 기억하고픈 과거를 아름답게 남겨준다. 게다가 오늘날은 디지털이라는 신문명으로 인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사진작가가 되기도 한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협회)의 전병재 회장을 만나 협회와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협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70년을 맞이했다. 협회의 설립 취지와 걸어온 길 등 협회 소개를 부탁한다.**

우리 협회는 전국에서 사진스튜디오를 경영하는 3천여 명의 사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1955년 창립 이래 한국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사진기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사진가의 지위 향상을 위해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친목을 다져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진실명제 등 사진문화 정책에 관한 건의 및 정부 시책에 대한 협조 ▲사진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진 작품 발표·전시회·촬영회 및 연구회 ▲사진 전문 교육기관 설치, 사진강좌의 개설 및 기능검정 실시 ▲사진 관련 도서출판 및 회보 발행 ▲사진문화상 시상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협회는 창립 이래 사진예술의 위상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수많은 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문성을 키웠고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사진 예술

을 알리기도 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회가 걸어온 길은 바로 한국 사진 예술사의 한 축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굵직한 행사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촬영대회, 전시회, 어르신 장수사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진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도 함께 호흡해 왔다. 특히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협회의 전통과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상사진업계가 직면한 일련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회원들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디지털 사진기술에 대한 월례 사진기술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 휘하 각 위원회의 유기적인 과제로 보다 내실 있는 디지털 사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70주년 행사 전경

* 회장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람된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보람된 순간은 늘 회원들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모아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고 나면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와 반대로 협회의 재정적 한계나 사회적 무관심에 부딪힐 때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들이 있었기에 오늘 느끼는 성취감이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사진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더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전속 사진사가 붙어서 따라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높으신 분들도 사진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나? 이미 국회에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우리 사진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 이번 회기뿐 아니라 21대나 20대 국회에서도 사진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나?



한국프로사진협회 70주년 행사 전경

국회에서 사진 진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 그러나 별도 입법보다는 기존의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 분야의 장르 간 구분 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반대이견 때문에 번번이 폐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전속 사진사가 붙어서 따라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높은 분들도 사진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나? 반대 논리대로라면 사진사 말고 인물화가 데리고 다니면서 기록하면 되지 않겠나?

❁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자. 사진에 입문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고등학교를 3곳을 다녔다. 대학에 가려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공고로 전학을 했는데 통신을 맡은 선원을 접하게 됐다. 1980년대 공무원 초봉이 6만 원

이었는데 통신 선원은 월급이 70만 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통신선원이 되기로 결심했고 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선원은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직업이라며 사진을 권유하셨다. 1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아버님 친구 밑에서 사진을 배웠다. 그 당시는 컬러사진이 도입되면서 흑백사진에서 컬러사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아버님의 친구가 사진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군 생활을 사단장 사진병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
회장으로서 협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협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 일을 해내자 한다. 첫 번째는 젊은 층 위주로 회원 수 배가운동을 하려고 한다. 우리 업계가 사양산업이 되어 가다 보

니 사진 일을 그만두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나 처럼 나이먹은 사람들은 배운 게 사진 밖에 없으니 죽으나 사나 사진에 매달리지만 젊은 친구들은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젊은 회원들을 늘려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협회에 가서 뭐 하느냐며 가입을 안 하려고 한다. 젊은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협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 때에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70주년 행사에서 내 판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역대 최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들 모두 즐겁고 웃게 하고 싶다. 세 번째는 협회에 부채가 많다. 역대 회장님들이 바뀔때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빚더미 협회가 되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조직구성부터 슬림화하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협회 소유의 건물 또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다.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무용도 예술이고, 의사도 예술이고,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모든 것은 보거나 듣는 이가 감동 받고 느끼면 예술이 된다. 그런데 사진 분야만 놓고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현관은 문이 한 개지만 안방, 작은 방, 거실 등이 있다. 그러면 거실을 제일 중요시하는 분도 있고 내가 자는 방을 중요시하는 분이 있듯이 우리 협회는 각기 다른 분야가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사진 장사꾼에 불과하다.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순수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취미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 또한 취미활동 우선이다. 우리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2025 초대·추천작가 사진전 및 독도탐방 사진전





“
 회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협회의
 참된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한국 사진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

❁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남긴다면**

회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협회의 참된 주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덕에 우리 협회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한국 사진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사진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회를 만들고 싶다.

❁ **협회의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듣고 싶다**

‘예측가능한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1959년생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협회가 창립됐다. 우리 협회는 선배들이 쌓아 올린 70년의 연륜을 바탕으로, 인상 사진계의 새로운 정보와 첨단기술 등 나날이 발전하는 사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앞으로도 세계적인 사진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주요 연혁

- 1955년 4월 7일 (사)대한사진가연합회 창립총회
- 1963년 1월 19일 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영업사진사협회”로 변경
- 1969년 5월 15일 사진의 날 제정 및 제1회 사진의 날 행사
- 1973년 6월 14일 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직업사진가협회”로 변경
- 1977년 8월 19일 회보(사단) 창간(문공부 라-2240으로 출판 등록)
- 1982년 5월 4일 부설 사진사연구소 개설(사진문화발전, 사진사자료 수집 및 편찬목적)
- 1994년 12월 1일 제1회 대한사진문화상 시상(서울 프레스센터)
- 1997년 8월 27일 협회명칭을 “대한프로사진가협회”로 변경
- 1998년 4월 15일 사진의 날 제정 선포식 및 기념대회(올림픽공원)
- 2007년 10월 1일 협회 명칭을 ‘한국프로사진협회’로 변경



KPPA
인상 · 순수사진작가
사/진/전
2025.11.1~11.30

주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주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 제 목 : 독도의 독심
- 작가소개 : 강행림
- 작품소개 : 독도의 향유
내고향 섬을 잠시 뒤로한,
독도경험의
심박함이 묻어난다.
이 향연은
우리를위한 자유
우리의 독도사랑이다.



- 제 목 : 시천항 일상
- 작가소개 : 김갑수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전)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 포토매니아 대표



▪ 제 목 : 왕해바라기

▪ 작가소개 : 김서연

- 예원사진관 대표
- 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프로인상사진 초대작가
- 추천작가 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캐논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광진지부 촬영대회 입상. 입선 다수
- 2006~2019 광진지부 회원전

▪ 작가수상 :

- 2012 12 05 광진구청장표창
- 2013 10 03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표창
- 2016 06 09 광진구의회 의장표창
- 2024 06 20 광진구청장표창



▪ 제 목 : 해바라기

▪ 작가소개 : 김선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오영주장관)
- 경찰청장 감사장(김기용 경찰청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주상용서울청장)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오세훈시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이성규서울청장)
- 31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총무이사
- 32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이사
- 33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
- 35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장
- 37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재무이사
- 38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법제이사
- 39대(사)한국프로사진협회 감사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현)

- 국토해양부 길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행안부 명품길 공모전 심사위원
- 제11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심사위원장
- 보건복지부주최 노인의식개선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 직능.소상공인 경진대회 작품 심사위원
- 낙동강 물길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산림환경 드론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인천 해양청 등대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 행안부 초대전 작품전시
- 김천교도소내 작품전시
- 광복70주년 순국선열 추모 문화작품전
- 수와진 사랑더하기 사진전(크리스마스썬타행사)



▪ **제 목** : “외로운 수호자” - 독도를 지키듯 홀로 우뚝 선 존재감을 표현

▪ **작가소개** : 나영균

- 현)열린문화이음(스튜디오) 대표 / 현) 한국사진뉴스 대표 /

현)열린문화 이음(비영리단체 운영) / 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

- 2013년 노원구의 과거 현재 미래 사진전을 북서울미술관에서 개관기념으로 (노원구청 주관 하고 한국사진뉴스에서 후원으로 작품 100점 전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지도해서 ‘나도 사진작가전’을 매년 노원구청로비에 전시 /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 전시 등 올해로 11 주년을 맞이했다.

▪ **작품소개** : 거친 파도와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바위. 그 속에서 저 는 인간의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동시에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의지를 보았습니다. 독도가 우리에게 단순한 섬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인 것처럼 이 바위 또한 고독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이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고독한 자태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 작은 바위 하나가 전해주는 깊은 울림이, 독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제 목 : 웅장한 바다
- 작가소개 : 박남국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추천작가
 - 2025 경기지회 운영위원
 - 2024 상반기 추천작가 지상공모전 가작
 - 2024 하반기 추천작가 지상공모전 가작
 - 2024 추천작가 촬영대회 은상
 - 2023 협회장 표창
 - 2022 경기지회 촬영대회 은상
 - 2020 상반기 지상공모전 금상



- 제 목 : 반가워 독도야!
- 작가소개 : 서현호
 - 2012 한국예총 사진인의상 수상
 -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
 - 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지도위원
 - “인생은 자유다” 서현호사진전
 - “과거와 지금” 서현호사진전



- 제목 : 특종은 누가 주는거야
- 작가소개 : 신승환
 - 스튜디오 운영 10년
 - 프리랜서 5년
 - 영상 및 드론 촬영 5년



▪ **제 목** : 울릉 갈매기

▪ **작가소개** : 신정식

- 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정회원

- 대구광역시 동구지부장 역임

- 대구광역시 지회장 역임

- 한국프로사진협회 총무이사

▪ **작품소개** : 독도 사진 촬영은 단순한 자연 풍경을 담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뜻깊은 경험이다.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 작은 섬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소중한 게 지켜져 왔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우리 땅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가치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독도를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소중한 문화적 실천이다.



▪ 제 목 : 포즈2

▪ 작가소개 : 이경우

- 2013~2016 광진지부 부지부장
- 2013 ~ 2016 한국프로사진협회 문화위원
- 2011 ~ 2012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촬영실장
- 2011. 8. 17 추천작가 작가번호 0861호
- 2014. 8. 19. 초대작가 자가번호 255호
- 2015. 9. 서울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 사진홍보대사
- 2017 ~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감사(현)
- 2017 ~ 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위원(현)
- 2019.8.27. 한국프로사진협회 62주년 촬영대회 지도
- 2019.06.13. 강원도 산불 화마를 이긴 사진촬영 대회



- 제 목 : 휴휴암
- 작가소개 : 이병덕



- 제목 : 홀로
- 작가소개 : 이성우



▪ 제 목 : 독도사진 인물

▪ 작가소개 : 이영범

- 현) 사진있는 풍경 / 디자인공간 운영

- 2023. 12. 21 ~ 12. 28 인상사진작품전 (주제 : 춤) 무등현대미술관

- 2022. 10. 07 ~ 10. 13 인상사진작품전 (주제 : 가족) 갤러리D

- 2021. 09. 27 ~ 10. 07 인상사진작품전 (주제 : 현장에 서다 그대 소방관) 갤러리D,
시청시민 홀

- 1996. 03. ~ 1999. 02 광주대학교 사진전공, 디자인부전공 졸업



▪ 제 목 : 파도

▪ 작가소개 : 이한우

- 사) 40대 작가제도 이사 (현)
- 사) 39대 작가제도 위원 역임
- 사) 38대 대외협력 위원 역임
- 사) 캐논 촬영대대 심사위원장
- 사) 프로사진협회 공모 및 촬영대회

다수 심사위원

- 사) 경기지회 감사 역임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역임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성남시 지부장 역임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78호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캐논촬영대회 금상 외 다수입상
-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촬영대회 금상외다수
- 2021년 4.19혁명 세계전진대회 메인작가로 참여
- 2021년.22년.23년 대한민국을빛낸 13인대상
- 메인 작가로 참여
- 2019년 20년 21년 국제언론클럽주최 8회 9회 10회 11회 글러
- 벌 자랑스런 세계인 대상 메인작가로 참여
-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촬영참여

▪ 작품소개 : 2025년 해양재단 의 초청으로 독도탐방길에 감격스런고 소중한 우리의땅 독도에 접안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땅 독도를 카메라에 담았다

1.독도를가다 (파노라마) 2.소리없는 대화 3.패밀리 4.독도의 삼형제 5.다시보고싶은 우리의 땅



- 제 목 : 바위섬
- 작가소개 : 장희수



▪ 제 목 : 백두산 일출

▪ 작가소개 : 정세화

- 프로인상사진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진지부 총무6년
- 니콘 촬영대회 작품심사위원
- 캐논 촬영대회 작품심사위원
- 울산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광주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장
- 대구지회 촬영대회 심사위원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지상공모전 심사위원
- 추천작가 지상공모전 심사위원
- 제16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심사위원
-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심사위원
-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
- 광진구청장 표창장
- 광진구의회 의장 표창장



▪ 제 목 : 길매기의 비행

▪ 작가소개 : 조춘근



▪ 제 목 : 시니어 모델

▪ 작가소개 : 최용수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수성구지부장(역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0253) 촬영지도위원(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현)
- 대구 온누리스튜디오 대표(현)
- 대구 세계육상권대회 홍보실 운영
- 국무총리 표창/통일부장관 표창



- 제 목 : 독도에서 나라위해 기도중
- 작가소개 : 허성구



- 제 목 : 갈매기
- 작가소개 : 황희원
 - 경원대 사진학과 졸업
 - 중앙대 사진연수원 이수
 - 현 서울지회 재무
 - 한국인상사진연구회 회원
 - 현 중앙스튜디오 대표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승호

인천지회뉴스

가보고 싶은 곳, 인천덕적도의 낙원 '덕적도 자연휴양림' 가볼까

카키빛 바다와 푸른 신록, 맑은 새소리 '자연의 오케스트라' 들으며 1박2일



연한 카키 빛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의 노래, 저마다 다른 소리를 뿜어내는 새들의 지저귀, 숲속 오솔길 따라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비조봉이 품은 '덕적도 자연휴양림' (이하 자연휴양림)에 들어서자 바다와 바람, 산새들이 연주하는 자연의 오케스트라가 방문객을 환영해 주었다.

앞쪽으로는 발지름 해변의 윤슬이 반짝이고 뒤편으로는 키 큰 소나무와 편백나무, 참나무 숲 그늘이 드리워진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전체가 거대한 힐링공간으로 다가온다.

연두빛, 진초록빛 나뭇잎들이 부풀어 오르는 초여름, 덕적도의 새로운 낙원 자연휴양림(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220)으로 여행을 떠났다.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가 반겨주는 입구에 들어서니 방문자센터 뒤로 2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객실 4개와 세미나실, 다목적실을 갖춘 '산림휴양관'이다.

산림휴양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깔끔한 흰색의 벽지와 나무결 모양의 브라운색 바닥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베란다로 난 커다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발지름해변'이

시원한 눈맛을 준다. 넓은 테라스엔 4인용 식탁과 선비치가 놓여 있다. 방 안엔 밥솥, 전자레인지에서부터 제습기까지 비치하고 있다.

산림휴양관 객실을 나와 비조봉 오솔길을 따라 걸어 오른다. 숲 오르막길 중간중간에 서 있는 아담한 현대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숲속의 집'은 말하자면 한 가족이 쓸 수 있는 독립 휴양시설이다. 1, 2, 3호까지는 단층이고 4, 5호는 2가족 이상 혹은 대가족을 위한 복층으로 지어졌다. 숙박시설들은 경사진 산등성이를 따라 늘어서 있는데 대부분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건물과 건물 사이도 넓게 떨어져 있어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숙박시설 바로 옆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 숙박과 함께 차박도 즐길 수 있다.

숲속의 집을 모두 지나 만나는 건물은 '카페테리아', 휴양림 꼭대기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6개의 평상이 놓인 야영장도 눈에 띈다.

비조봉에 올라 진리해변 쪽을 바라본다. 수평선이 주홍빛으로 물들며 태양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 이용 방법

- 예약방법 : 예약플랫폼 : 숲나들e (회원가입 필수)
- 예약절차 : 자연휴양림 바로가기 -> 인천/경기 ->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선택
- 숙박가능일 : 최대 2박3일, 최대 3개시설(객실+야영장)
- 이용 가능 & 인원 선택 뒤 조회
- 숙박시설 : 야영장 확인 후 예약 진행

■ 문의

- 숲나들e 통합고객센터 : 1588-3250
- 관리사무실 : 032-899-2860

■ 자료제공 : 옹진군청

2025년 다둥이 가족사진 전시회를 위한 가족사진촬영



로, 파도 소리가 거문고처럼 들린다 하여 '슬도(瑟島)'라 불립니다.

대왕암 공원은 산책이 즐거운 숲 그늘과 기암괴석 해변을 끼고 있는 동구 일산동의 공원은 도심 속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귀한 휴식처다.우리 나라 동남단에서 동해쪽으로 가장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지점에 해당하는 대왕암공원은, 그래서 동해의 길잡이를 하는 울기등대로도 유명하다.

문수체육공원은 울산에서 단풍을 보러 가는 곳으로 유명한 곳으로 느티나무 단풍을 볼 수 있는 명소이다.

이렇게 다양한곳에서 여러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다가오는 11월 다둥이 가족사진 전시회에 다둥이 가족분들의 행복한 순간이 하나의 액자로 완성되어 전시 될것이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지회(안성현)은 2025년 다둥이 가족사진 전시회를 위하여 울산 12경을 비롯한 스튜디오 촬영을 9월말부터 추석연휴 기간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서 진행하였다.

간절곶 [良絶串]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일만의 호미곶보다 1분 빠르게, 강릉의 정동진보다도 5분 빨리 해돋이가 시작된다. 주위에 있는 울산 지역의 진해해수욕장, 서생포 왜성과 함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간절곶등대는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서 있으며 흰색이다. 등대 앞은 숲인데, 울창하지는 않지만 교불교불한 모양이 정겹다.

슬도는 울산 방어진항 끝의 작은 무인도이자 자연 방파제



전남지회뉴스

"서현호의 카메라 아카이브" 코너 소개



카메라의 역사 보존과 사진 문화 계승의 취지를 구성했습니다.
기획위원장 나영균

• 취 지

사진의 역사는 곧 카메라의 역사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는 수많은 기술적 혁신과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현호의 카메라 아카이브'는 사진작가 서현호가 오랜 세월 정성껏 수집하고 보존해온 역사적 카메라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한 기계를 넘어, 각 시대의 사진문화와 기술적 성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카메라들을 통해 사진 예술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사진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 세대 간 사진 문화 전승선배 사진가들이 사용했던 카메라와 그 시대의 사진 작업 방식을 공유하여, 젊은 사진가들에게 사진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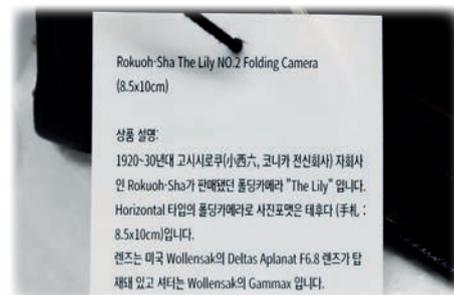
4. 수집가와 애호가들의 교류빈티지 카메라 수집가와 사진 애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체 내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합니다.

• 목 적

1. 사진 역사의 기록과 보존희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카메라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기록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사진 문화유산을 보존합니다.

2. 사진 기술의 이해 증진각 시대별 카메라의 메커니즘과

• 매월 한 대의 특별한 카메라와 그 카메라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지회 제6회 2025 인상사진전 개최

2025. 10. 16-22 광주무등현대미술관



『새벽을 여는 사람들』 전시 서문

글: 이영범 기획위원장

1. 사진의 시대적 맥락

이 사진들은 단순한 직업인의 초상을 넘어, **2025년대 한국 사회의 일상 구조와 사회사적 맥락**을 담아낸 기록이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도시화, 세계화, 디지털 경제의 전환 속에서 여전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동과 새벽의 움직임**이다. 본 전시는 그 노동의 얼굴을 드러내고, 시대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이다.

2. 도시를 지탱하는 노동

버스 기사: 대중교통은 도시인의 하루를 여는 심장이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운전대를 잡은 기사들의 모습은 도시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프라의 초상이다.

환경미화원: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들의 손길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도시는 결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빛과 그림자 속에서 쓰레기 봉투를 드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노동’의 진실을 드러낸다.

3. 시장과 공동체 경제

수산시장, 청과시장, 경매 현장: 손에 잡히는 생선, 과일, 나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활경제’의 증거다. 대형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의 공간이다.

웃는 상인 부부: 무거운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노동과 삶의 긍정적 미학을 담아낸다.

4.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

소방관과 구급차: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안 속에서 소방관과 구급차는 사회의 최전선이다.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시선은 재난 사회 속 시민 안전망의 실체를 증명한다.

이 장면들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며 한국 사회가 ‘안전’의 가치를 어떻게 재인식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대의 증언이다.

5. 건강, 기후, 정보

운동하는 시민들: 헬스장, 운동장, 러닝은 ‘몸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사회’의 전형이다. 고령화와 팬데믹은 운동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전략으로 만들었다.

기상캐스터: 날씨는 더 이상 단순한 예보가 아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일상의 조건을 규정하는 사회적 데이터이며, 방송의 화면은 훗날 “사람들은 어떻게 기후와 재난에 대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 사료가 될 것이다.

6. 역사적 의미와 기록성

이 사진들은 오늘의 ‘노동하는 얼굴’을 기록한 것이자, 훗날 역사가들이 “**2025년대 한국 사회는 무엇으로 움직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할 사료다.

경제사적 기록: 시장과 교통, 서비스와 재난 대응 체계.
문화사적 기록: 자기관리, 공동체적 삶, 기후와 미디어의 영향.
노동사적 기록: 보이지 않는 새벽노동의 증명.

결론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아니라, **사회사적 시각 아카이브**다. 각 인물의 눈빛, 손동작, 도구와 공간은 우리 시대의 구조와 문화를 증언한다. 이 기록은 오늘의 관람객에게는 공감의 장이 되고, 미래의 연구자들에게는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한국프로사진협회 발전기금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사진가의 길은 시간 위에 쌓입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모든 전문 사진가의 권익과 사진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울림이 되어, 사진시장의 미래를 밝힙니다.

발전기금은 협회의 재정운용과 교육, 전시 및 출판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보내실곳 : (농협은행) 301-0127-4083-41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를 후원해 주신 분 (단위 원)

김귀홍	100,000	김광수(강원앨범조합 이사장)	100,000
서호경	100,000	성철현(앨범연합회 회장)	200,000
신병호	100,000	권용옥	100,000
심준섭	100,000	김찬홍(경남앨범조합 이사장)	300,000
이승호	1,000,000	김현식(서울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이영익	100,000	박복근	200,000
이재범	100,000	박수열(경기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이한우	100,000	배계환(경북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장광동	100,000	육재원	100,000
조구성	100,000	장광동(충북앨범조합 이사장)	100,000
이재범	100,000	전씨 문중	100,000
		정옥기	200,000
		최영규(부산앨범조합 이사장)	200,000

The logo features a large green '70' with a circular emblem inside the '0' containing the KPPA logo and the text 'SINCE 1955'.

70년의 서터, 미래를 보다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The Smartest Company of Seoul



글로벌 경소기업
The Global Best Company of Korea



INNOBIZ
기술혁신진흥소기업